정찬주 역사대하소설 **아쇼까대왕** 33



▶ 34회 예고
아쇼까 일행은 베디샤나가르로 순행을 떠난다. 그런데 아쇼까는 그곳을 조망할 수 있는 곳으로 먼저 가자고 한다. 산치 동산에 오른 아쇼까는 그곳의 절에서 담마팔 승려와 어머니를 위해 기도하러 온 베디샤데비를 만난다.

아쇼까, '베디샤나가르' 첫 순행지로…

아쇼까는 빈두사라왕에게 보고한 대로 순행을 계획했다. 순행이란 수도를 떠나 지방을 돌면서 지방주민들을 만나는 일종의 민심탐방 통치였다. 순행할 때는 사전답사의 순서가 있었다. 비서실장격인 관리와 호위대장이 먼저 현장을 확인한 뒤 지방을 결정했다. 사전에 답사한 여러 지방의 현황을 관리가 보고하면 아쇼까는 어느 한 지방을 지목해서 순행에 나설 작정이었다. 순행할 지방이 사전에 발설되는 누설을 방지하기 위해 경비대장은 호위대장에게 입단속을 철저하게 시켰다.

호위하는 군사는 최소화했다. 전투코끼리부대는 성에 남겨 두고 기마부대도 일부만 거느리고 떠날 계획이었다. 선봉대장이 길을 안내하는 향도라면 호위대장은 아쇼까가 탄 코끼리 앞뒤에서 기마부대를 지휘할 터였다. 아쇼까가 탄 코끼리 등에는 커다란 일산이 펴져 있기 때문에 어디서든 부왕의 권위를 드러낼 것이었다.

마침내 건기가 시작되기 전이었다. 비서실장격인 관리와 호위대장이 답사한 지방들을 아쇼까에게 보고했다. 아쇼까는 웃자인에서 가까운 도시에서 먼 곳의 도시 현황을 들었다. 먼 곳이라면 수나빠란따와 말와, 꾸루라가라 등이었고 가까운 도시라면 베디샤, 베디샤나가르, 산치였다. 아쇼까가 호위대장에게 말했다.

"대장은 어느 곳부터 가는 것이 좋겠는가?"

"말와는 순행하시기에 좋습니다. 벌써 선선해지고 있습니다."

"그대는 어디가 좋은가?"

아쇼까가 비서실장격인 관리에게도 물었다.

"첫 번째 순행은 먼 지방보다 가까운 산치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대의 의견을 따르겠소. 이번 순행은 하룻밤 정도 머물고 오는 산치로 가겠소."

"산치 부근에 작은 마을 베디샤나가르가 있습니다. 사끼야족이 살고 있습니다."

그제야 아쇼까는 베디샤데바의 농원을 떠올렸다. 베디샤데바가 궁중연회 중에 언제라도 자신의 농원으로 초대하고 싶다고 정중하게 말했던 것이다. 아쇼까는 초대를 먼저 받았으니 베디샤데바의 농원을 들르는 것은 민폐가 아니라고 생각했다.

"순행길에 나설 호위부대는 최소화했지요?"

"부왕님 지시대로 이미 작지만 강한 호위부대를 선발해 훈련을 시켜놓았습니다."

"호위대장과 잘 의논해서 군사를 운용하시오."

선봉대장은 빠딸리뿌뜨라에서 온 아쇼까의 복심이었고, 호위대장은 웃자인 출신으로 아반띠국의 지리에 훤한 인물이었다. 아쇼까에게는 두 사람 모두 필요한 장수들이었다. 그래도 선임은 두말 할 것도 없이 선봉대장이었다. 웃자인에 있는 어느 부대장도 선봉대장의 명을 거역할 사람은 없었다. 선봉대장은 아쇼까의 그림자 같은 분신이었다. 선봉대장이 말했다.

"경비대장은 웃자인에 남아 성을 지키기로 했습니다."

"그래야 하오. 경비대장까지 모두 나서서 성을 비울 수는 없소."

"그런데 부왕님, 건의가 하나 있습니다."

"무엇이오?"

"소장이 부왕님께서 순행하실 지방을 정찰하고 돌아오겠습니다."

"호위대장이 먼저 다녀왔지만 안 될 것도 없소."

"순행도 군사적인 전략이 필요하기에 드린 말씀입니다."

아쇼까는 선봉대장이 평소의 용맹함에다 이제 치밀함까지 갖추었다고 생각했다. 순행할 때 평지나 강이 있을 터인즉, 평지의 행군과 강의 도하 작전을 예상하는 것은 군사적인 전략이나 다름없었다. 만의 하나, 적의 기습을 대비해 두어야 하는 것도 전술적인 방어책이었다.

선봉대장의 제안에 따라 아쇼까의 순행은 며칠 동안 지연됐다. 그 사이에 베디샤데바가 경비대장을 통해 왕궁으로 들어왔다. 호위대장이 베디샤나가르를 정찰하고 갔다는 사실을 베디샤데바에게 알려준 사람은 베디샤나가르 농원 총책임자인 집사 타리쉬였다. 호위대장은 타리쉬의 외사촌 동생이어서 자연스럽게 만나 아쇼까의 순행을 이야기했고, 타리쉬가 베디샤까지 달려와 베디샤데바에게 보고했던 것이다.

다행히 아쇼까는 베디샤데바의 면담을 허락했다. 아쇼까는 그날 궁중연회가 만족스러웠으므로 베디샤데바를 반갑게 맞이했다.

"데바 수장 덕분에 웃자인 전통음식을 맛보았소."

"부왕님이시여, 사실은 제 딸이 만든 음식이었습니다."

"그래요? 또 다시 맛볼 수 있기를 바라오."

"기회가 또 온다면 제 딸 데비로서는 더 없는 영광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나를 찾아온 이유는 무엇이오?"

"부왕님께서 베디샤나가르에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왔습니다."

"소문이 벌써 났소?"

"예, 소문을 들었습니다."

"사실이오."

베디샤데바는 감격한 나머지 두 손을 모아 합장하며 말했다.

"궁중연회가 끝나갈 무렵 조급한 마음으로 다가가 부왕님을 초대했지만 이처럼 빨리 오실 줄은 몰랐습니다. 사끼야족이 사는 저희 베디샤나가르 마을로서는 가장 기쁜 날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아쇼까는 정색을 하며 말했다.

"순행은 예고 없이 가서 민심을 듣는 것이 목적이오. 혹시라도 데바 수장께서 나를 위해 환영준비라도 한다면 나는 베디샤나가르도, 산치도 가지 않을 것이오. 그러니 아무 일이 없기를 바라오."

"부왕님이시여, 명대로 하겠습니다."

베디샤데바는 아쇼까의 날카로운 눈매에 등골이 오싹했다. 궁중연회에서 보았던 친절한 모습과 달리 아쇼까의 말투는 냉혹하기조차 했다. 베디샤데바는 순간적으로 아쇼까에 대한 인상이 바뀌었다. 아쇼까의 눈매는 독수리눈처럼 사나웠고, 말투는 얼음같이 차가운 데가 있었다. 베디샤데바는 왕궁을 나오면서 "어쩌면 저 모습이 부왕의 본래 모습일지 몰라." 하고 중얼거렸다. 서둘러 저택으로 돌아온 베디샤데바는 딸 데비를 불렀다.

"마차를 내줄 테니 너는 지금 베디샤나가르로 가거라. 네 어머니를 잘 돌보고 있거라. 가서 있으면 너도 알게 될 것이다."

"어머니께서 많이 편찮으신가요? 아버지께서는 언제 오시나요?"

"어머니는 조금씩 회복 중이다. 나는 내일 상인회의를 마치고 갈 것이다."

베디샤데바는 딸 데비가 마차를 타고 동문으로 나가는 것까지 지켜보았다. 베디샤데바는 안절부절못했다. 베디샤나가르 일대가 자신의 농원이기 때문에 아쇼까가 분명 들를 텐데 지금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다. 아쇼까가 냉정한 얼굴로 베디샤나가르 순행을 비밀에 부쳐달라고 엄명했기 때문이었다. 베디샤데바는 궁중회의 때 공연히 초대를 했나 싶어 후회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쇼까가 베디샤나가르를 순행한다고 하니 지금이라도 상인회의를 취소한 뒤, 말을 타고 가서 하인들을 시켜 농원 저택과 정원을 단장할까 하는 생각도 들었다. 그러나 베디샤데바는 고개를 흔들었다.

'상인회의를 취소하는 건 말도 안 되지. 상도의에 벗어나는 일이지.'

상인수장들은 이미 웃자인에 도착하여 묵고 있었다. 이번에 모이는 상인수장들은 아반띠국뿐만 아니라 꼬삼비, 바라나시, 빠딸리뿌뜨라, 짬빠에서 온 사람들이었다.



갑자기 마차를 탄 베디샤데비는 어머니 데바 부인이 요양 중인 농원에 도착했다. 하인들이 달려와 베디샤데비에게 인사했다. 양떼와 소떼들이 풀을 뜯는 농원은 언제 오든 베디샤데비를 포근하게 감싸주었다. 데비 자신이 태어난 곳이기 때문에 그런 감정이 드는지도 몰랐다. 사람들이 바글바글한 웃자인이나 베디샤와는 달랐다. 베디샤데비는 농원에 발을 딛는 순간 마음이 자신도 모르게 평화로워졌다. 베디샤데비가 가방을 놓고 두 손을 뻗으며 소리쳤다.

"아, 신선한 공기. 내가 좋아하는 뻡빨라나무들!"

지평선까지 펼쳐진 농원은 말을 타고 달려야 할 만큼 드넓었다. 구릉에는 듬성듬성 뻡빨라나무들이 서 있었다. 뻡빨라나무는 양치기 하인들이 낮잠을 자는 곳이기도 했다. 타리쉬가 다가와 베디샤데비의 가방을 들었다.

"데비님, 데바 수장님 마차를 타고 오셨군요."

"아버지께서 지금 바로 떠나 어머니를 돌보라고 해서 왔어요."

타리쉬는 눈치가 빨랐다. 데비는 아직 아쇼까의 순행을 모르고 있구나, 하고 판단했다. 호위대장이 외사촌 형인 자신을 만났을 때 누구에게도 발설하지 말라고 단단히 부탁했던 것이다. 아쇼까의 순행을 아는 사람은 베디샤데바와 자신뿐이었다. 타리쉬는 자신의 주인인 베디샤데바에게만은 알리지 않을 수 없었다. 타리쉬는 아무에게도 발설하지 말라는 호위대장의 말까지 베디샤데바에게 전했던 것이다. 그러니 데비가 베디샤나가르에 내려온 이유를 모르는 것은 당연했다.

베디샤데비는 농원 정문을 들어서면서 깜짝 놀랐다. 하인들이 정원의 나무와 풀을 다듬고, 화사하게 꽃을 피우고 있는 대형 화분들을 저택으로 들어가는 길 양편으로 옮기고들 있었다. 데비가 타리쉬에게 물었다.

"타리쉬, 무슨 일이 있어요?"

"일 년에 한 번씩 하는 일입니다."

"귀한 손님을 맞으려고 대청소를 하는 것 같아요."

"물론입죠. 데비님이 오셨잖습니까?"

"호호호. 칙칙했던 집이 밝아졌어요. 어머니께서도 기분이 좋으시겠어요."

저택 안팎도 하인들이 달라붙어 벽돌에 낀 먼지를 물걸레로 닦아내고 있었다. 하인들이 베디샤데비를 보자, 물걸레질을 멈추고 고개를 숙였다. 데비는 바로 어머니가 누워 있는 방으로 가서 인사했다.

"어머니 저 왔어요. 이번에는 어머니와 오랫동안 함께 지낼래요."

"오, 내 딸 데비가 왔구나."

데바 부인이 침대에서 일어나 앉은 채로 희미하게 웃었다.

"건강은 어떠셔요?"

"많이 좋아졌단다. 아침에는 정원을 산책도 하지."

"이제 일어나 산치에 있는 절에도 가실 것 같아요."

"그러면 얼마나 좋겠니? 저 창문을 열어다오."

베디샤데비가 커튼을 젖히고 창문을 열었다. 햇살이 쏟아져 들어와 잠시 눈이 부셨다. 데바 부인이 보려고 한 것은 구릉 끝에 있는 산치의 볼록한 동산이었다. 동산에는 작은 건물이 하나 보일락 말락 했다. 베디샤데바가 가족의 행운을 빌기 위해 지은 절이었다.

"스님들이 기도해주는 덕분이란다. 내가 이만큼 회복한 것은."

"저도 가서 기도할게요. 빨리 일어나셔야 해요."

"네가 기도해주겠다니 고맙구나."

"오늘은 쉬고 내일부터 당장 기도할 거예요."

베디샤데비는 어머니의 손을 잡고 약속했다. 어머니를 돌보라고 한 것은 아버지 데바의 당부이기도 했다. 베디샤데비는 자신이 어머니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기도밖에 없다고 생각했다.

"지금은 스님이 몇 분이나 계셔요?"

"그대로일 거다."

"열 분?"

"응."

한 달에 한 번씩 큰 공양을 올리기 때문에 농원의 하인들도 다 알고 있었다. 타리쉬는 때가 되면 반드시 음식을 가득 실은 수레를 산치 동산의 절에 보냈던 것이다. 〈계속〉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KBS 과학카페



이강욱 교수의 체질개선 해독 다이어트

박현숙 원장 출연(2010.2.6)



여자가 살빼기 더 힘든 이유

여성이 살빼기 더 힘든 것은 임신과 출산이라는 여성 본래의 역할로 남성보다 2배 이상의 체지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영양과다, 운동부족, 대사기능 장애 등으로 노폐물이 쌓여 임신전의 체중으로 복귀하지 않는 여성이 상당수이다. 또한 생리기간 동안 체내에 축적된 수분이 부종으로 바뀌어 체중이 증가하여 합병증과 암발생 등 고 위험을 수반하게 된다.

일상생활하며,
공복감없이
2주에 5-8kg 감량

체내 노폐물이 빠지며
건강체질로 바뀌는 효소 절식법

뚱뚱하다는 것은 단지 체내에 보기 싫은 지방만이 쌓인 것이 아니다. 오염된 환경에서 성장한 우리의 몸 속에는 노폐물이 장 속에 이끼처럼 숙변으로 쌓이고 간에 지방이 엉키고 혈관에 쌓여 혈액이 탁해지고 막히는 현상이 발생한다. 살빼는 약을 먹거나 단을 하여도 살은 빠진다. 그러나 무엇이 빠지느냐가 문제다. 체중은 줄이되 노폐물을 제거하고 줄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손발이 저리고 숨이 답답하고 피는 더욱 탁해져 혈액순환 장애의 증상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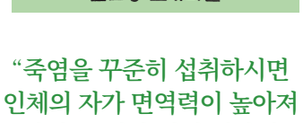
살아 숨쉬는 천연 비타민과 미네랄, 수억의 효소들을 인체에 공급하면 모든 장기들이 휴식을 취하면서 수십년간 쌓인독성 노폐물을 청소하고 지방을 분해하는 내과적 수술로써 체중 감량이 된다는 26년 임상실험!

초록원웰빙 02)523-0708 김영숙 010-7384-1708
인터넷 검색창에서 초록원웰빙 을 치세요.

민속죽염 30년 전통
조상의 얼과 혼이 담긴 우리 민족의 대표 죽염

인체건강의 4대 요소는 "맑은 물, 맑은 공기, 맑은 음식, 질좋은 소금" 인데 이 중 "질 좋은 소금" 자색죽염은 총 아홉 번의 가열 과정을 거쳐 독성의 완전 제거와 약성의 완전 합성이 이루어지며 마지막 아홉 번째는 극강한 열에 의한 용융 과정을 거쳐 탄생된 품질이 가장 우수한 죽염입니다. 이 죽염은 다음과 같은 기능이 있기에 일반인 및 환자들에게 꾸준한 섭취를 권장 할 수 있는 좋은 식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① 강한 해독작용을 하며 간 기능을 좋게 한다.
② 소염작용을 하며 잇몸과 치아를 튼튼하게 해 준다.
③ 위장을 튼튼히 하며 식욕을 촉진시킨다.
④ 정혈작용 등 체질개선에 도움을 준다.



생명 에너지를 굳건히 지키면 약이 입에 이르기 전에 병이 낫는다.

생명 에너지를 굳건히 지키면 약이 입에 이르기 전에 병이 낫는다.
환인동 요가마을

"죽염을 꾸준히 섭취하시면 인체의 자가 면역력이 높아져 감기 등 기타 질병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 9번 구운 민속죽염 ◈

가루자죽염	125g	40,000원
가루자죽염	230g	73,000원
알갱이자죽염	125g	43,000원
알갱이자죽염	230g	78,500원
휴대용 알갱이 자죽염	20g	7,500원

※단체 선물용으로 적합합니다.

◈ 2번 구운 민속죽염 ◈

◆ 음식조리용 · 양치용 · 피부미용

보급형 민속죽염	500g	18,000원
	250g	9,000원

◈ 자죽염 구매시 사은품 「휴대용 알갱이 자죽염 10g」 증정. 회원우대 ※구입가 5만원 미만은 배송비 3천원 적용됩니다.

주문 및 상담 010-2823-0483
입금 : 농협 150012-56-086122 예금주 : 김용희(민속죽염)
경북 영덕군 지품면 속곡동 54번지 www.msjy.co.kr